



박물관 건설과 고속철도 공사로 몸살

한반도 산악산악의 분항인 계룡산.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개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학사를 품고 있는 계룡산. 산과 절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계룡산은 신라 때부터 매년 불가을로 제사를 받아오던 오악(五岳) 중의 하나로, 한반도 산악산악의 분항이다. 동학사는 그 골짜기에 핀 한 송이 연꽃이다.

근래 들어 계룡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다고 국립공원 내 장군봉 기슭을 수천 평이나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되면서 터널이 계룡산을 관통하게 되어 큰 생태계를 받게 되었다.

이 곳에 동학사가 들어앉은 것은 신라의 전성시대인 성덕왕 시절이다. 상원대사가 신중에게 지은 암자를 나중에 회의대사가 증창하며 상원사(上願寺)라 불렀다고 한다.

식당이 뒤로는 계곡이다. 칠맛은 쳐놓았지만, 식당 측에서 계곡을 인공수로처럼 합부로 변형시켜 놓고 손님들을 받고 있다. 그 바람에 수생생물은 물론 물고기도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죽은 계곡이 되어 버렸다.

숲길은 큰절까지 1km가 넘는다. 목본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이만한 사할 숲은 그리 흔치 않다. 복자기, 왕벚나무, 양버즘, 아카시나무, 고욤나무, 일본단풍, 밤나무, 편백나무, 전나무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계룡산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다.

계곡 주변의 나무들은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다가 제 모양새를 가진 나무들이 흔치 않다. 울공은 소나무까지도 그들의 틈새에 끼어서 이리 휘고 저리 굽었다.

동학사계곡은 길이는 짧지만 아가자기한 데가 있다. 자맥질을 할 만한 소(窩)도 있고, 물맞이를 할 만한 폭포도 여럿 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더위를 씻고 있다.

주변환경이 비교적 청정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벌이고 있

는 클린업타임(clean up time) 운동 덕분이다. 이것은 정해진 짧은 시간에 탐방객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청소에 참여하는 일종의 환경운동이다.

극락교를 지나 도착한 관음암 뜰엔 배롱나무와 능소화가 꽃들을 피워놓고 자지러진다. 꽃들의 수도에도 아랑곳없이 밀집자리 암컷 한 마리가 물수조에 앉아 미풍도 없이 즐기고 있다.

밀집자리 수컷은 하늘색을 띠지만, 암컷은 사진에 보듯이 황갈색을 띤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여름잠자리이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곳을 뜨고 마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사 주변의 잠자리는 이 밖에도 마이키추범잠자리를 비롯해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대웅전 뒤로 조립한 편백숲이 들직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 편백은 일반 특산종이지만, 우리 남부지방에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잘 자란다. 현재 선운사 등 남부지방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위도상 동학사 북쪽에서는 흔하지 않은 편백숲이다.

주변 식당서 계곡 변형시켜 물고기 사라져 '클린업타임' 운동으로 주변환경은 청정 고리치레도롱뇽 발견은 깨끗한 수질 입증

큰 절에서 5분가량 떨어진 실상선원 주변은 장승들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 동학사 주변의 소나무들은 활엽수의 공세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소나무를 위협할 정도로 활엽수의 기질이 속속 자랐다. 판세는 이미 활엽수 쪽으로 기울어져서 말 밑에는 후계목도 자라지 않고 있다.

피리명주나비 한 마리가 대웅전 뒤 바위에 앉아 있다. 피리명주나비는 양쪽 날개에 피리가 달려 있고, 명주처럼 날개가 투명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성질이 온순하고 날개의 움직임이 느리고 우아하다. 그만큼 천적들에게 해피지를 당할 확률도 높다. 아나나 다름가? 어른들을 따라 온 개구쟁이들에게 피리를 잡혔다가 빠져나오면서 한쪽 피리를 뜯겼다.

이 밖에 절 주변에서 산제비나비, 황제줄나비, 대만흰나비, 뽕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여름철 비가 온 다음이면 가끔 경내에 피리치레도롱뇽이 나타난다. 이름에서 보듯이 일반 도롱뇽과 달리 피리가 유난히 길어서 몸 전체 길이가 어른 한 뼘 정도 된다. 황갈색 바탕에 아름다운 점 무늬가 조밀하게 흩어져 있어서 일반 도롱뇽에 비해 아름답다.

우리나라 양서류 중 가장 깨끗한 물에 사는 피리치레도롱뇽은 풍부한 산소와 낮은 수온을 서식조건으로 한다. 경내에 물이 항상 흐르는 작은 샘이나 바위틈 어디엔가 서식처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 특종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학사에서 피리치레도롱뇽을 지표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처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학사 주변은 활엽수가 많아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같은 딱정벌레들이 다양하게 관찰된다. 밤이면 불빛을 쫓아 날아들었다가 창문이나 벽에 부딪치고는 더러 기절상태에서 아침을 맞곤 한다.

사슴풍뎅이는 수컷의 돌기가 사슴의 뿔을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나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는 회백색의 가루 물질로 덮여 있다. 적갈색 앞다리 발목마디가 뚜렷하게 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컷은 매우 공격적이라서 앞다리를 크게 벌이고 위협을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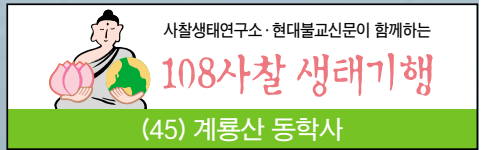
큰 절에서 은선폭포까지는 1km가 넘는 돌길(石徑)이다. 계룡산 지역은 온대 남부와 중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북한계 식물과 남한계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목본으로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까치박달나무 등이 분포한다.

일본잎갈나무 줄기가 시민들이 새 집을 달아놓았다. 지난 6월말 조사 때는 곤졸박이 새끼들의 이소(蟻巢)가 한창이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은 텅 빈 집이다.

남매탐으로 오르는 계곡의 식생도 은선폭포 계곡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등산로 주변은 거의가 활엽수들이다. 계룡산의 초본류는 몇 차례의 조사에서 860종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어수리, 원추리, 참나리, 털중나리, 하늘말나리, 으아리, 사위질빵, 산평의다리, 까치수영, 산수국, 맥문동 등이 등산로 주변에서 꽃들을 피우고 있다.

계룡산의 육식 포유류로는 삿, 너구리, 오소리 등이 관찰되고 있다.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사라진 밤이면 이따금 너구리가 동학사 숲길을 어슬렁거리고, 얼마 전엔 동학사 건너편 숲에서 오소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깨끗한 물에만 사는 피리치레도롱뇽.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원추리꽃.



사슴풍뎅이는 적갈색 앞다리 발목마디가 긴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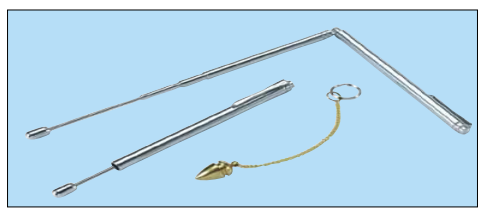


물잠자리는 환경이 나빠지면 그곳을 뜨고 마는 지표종이다.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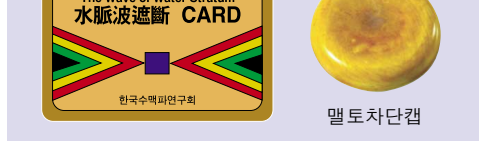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쑤다. 수맥탐지기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흙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냇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실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냇나노 엘로드와 탐사주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입금능협053-12-102911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시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간편하게 인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복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은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발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 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손금도금에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 냇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발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숱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발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능협053-12-102911

관세음수진언 옥환의 소망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의 소원성취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 지혜의 자녀를 얻는 영험

관음보문품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42가지 수진언은 세상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의 손이며 법구다. 세상중생들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자손이 없는 고민으로 관세음보살께서는 인연이 되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인연의 씨앗인 후손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전생의 업보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것이 관세음 42수주 영험중 17번인 관세음수진언 옥환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嚴欲求男) 관세음보살께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며(便生德智慧之男) 가령 딸을 얻고자 하면(嚴欲求女) 단정하고 훌륭한 상호를 갖춘 딸을(便生端正有相之女) 낳을 것이니라.(관세음보문품경에서) 관세음수진언 옥환은 지혜의 자녀뿐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쏟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다. 불경에 인하여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불교의식을 마치고 출사한 관세음보살 옥환을 부부가 베게속에 각각 넣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99% 순 냇나노로 만들어 졌으며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 후손을 기다리는 가정과,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영험의 법구다. 전화로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축원발공과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100원 불공을 드린다. 문의(02)741-4487

관세음수진언 옥환의 소망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의 소원성취